김한종 장성군수 "미래 가치 성장 대도약 주력"

●민선 8기 2주년

돌봄·힐링 관광 등 후반기 군정 운영 5대 중심축 제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고려시멘트 공장 중단 등 성과

김한종 장성군수가 최근 민선 8기 2주년 정례조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의 미래가치 성장을 위한 대도약에 나선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기념 정례조회에서 김한종 군수가 후반기 군정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장성군은 '미래를 향한 대도약! 성장하는 장성'을 목표로 ▲돌봄 ▲힐링 관광 ▲인공지능(AI)·일자리 ▲스마트 농업 ▲지속가능 성장 '5대 비전'을 후반기 군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후반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돌봄'이다. 장성군은 오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가족행복센터를 통해 지역 통합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읍 시가지에 건립해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들어선다.

유아돌봄지원센터 운영,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북이면 키즈레일어린이집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해 영유아부터 청소년 등 온 가족을 아우르는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을 무대로 한 선비문화 육성과 고품격 '글로벌 콘텐츠' 확충에 주력한다. 창군 이래 최초로 유치한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발맞춰 '2025년 장성 방문의 해'도 운영한다.

또한 뮤직 페스티벌로 변신에 성공한 길동무 꽃길축제와 전남 대표축제인 황룡강 가을꽃축제, 한식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 권역별 음식특화거리를 만드는 '5대 맛거리 조성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K-생태 힐링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2029년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문을 열면 의료, 건강 먹거리, 관광의 3요소를 고루 갖추게 된다.

적극적인 첨단기술 도입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전남 최초로 전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운용 중인 장성군은 후반기에도 이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군민 행복'을 동시에 이룰 예정이다.

또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복합단지 개발계획 수립, 전남형 만원주택, 청운지하차도 개설,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다 같이 잘 사는 장성'을 만든다.

농업 분야에서는 삼계면 상도리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원예작물 안정 생산단지 조성, 신소득 레몬 재배단지 육성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K-푸드' 산업 지원과 청년 주도 농식품 산업 육성, '2040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영농 활동을 체계적으로 돕고,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기술 도입과 스마트 농업을 적극 추진해 농산업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다.

환경을 고려한 군정 운영에도 힘쓴다. '에코 장성'을 목표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와 기존 매립시설 정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한종 군수는 "장성군민의 20년 숙원이었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과 '고려시멘트 공장 가동 중단'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전반기는 쉼 없이 달려온 장성의 걸음이 유난히 빛난 시간이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전반기 성과를 성장 동력 삼아 본격 비상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 거문도, 바닷길 '활짝' 열렸다

590t 규모 '하멜호' 신규 취항…일일 2차례 왕복

여수-거문 간 정기여객선 '하멜호'가 신규 취항함에 따라 거문도 바닷길이 '활짝' 열렸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KT마린 선사 주최로 여수 엑스포 터미널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선사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거문 간 정기여객선 '하멜호(사진)' 취항식이 열렸다.

'하멜호'는 590t 규모에 여객정원 430명, 최대 속도 40노트에 달하는 초 쾌속 대형 여객선으로 여수-나로도-손죽-초도-거문 항로를 운항한다.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왕복 운항 예정이며, 여수-거문 간 운항 시간은 2시간10분 정도로, 기존 3시간이 넘는 항해시간을 단축시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여수-거문항로는 기존 정기여객선 선령 만료 시기 도래 및 선박 노후화로 인한 잦은 결항, 1일 1회 왕복에 따른 여객선 이용객 접근성 저하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거문항로 안정화를 위해 선사 공모, 조례개정, 해수부 면담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지난해는 10여일간의 장기간 결항에 따라 선사나 지방해수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예비선 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신규 출항하는 '하멜호'는 해수청 공모를 거쳐 선정된 KT마린 선사의 여객선으로 해수청 최종 운항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 정식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향후 10년간 KT마린 선사에 선박 감가상각비, 운항 결손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전남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고, 특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는 중요한 책무"라며 "섬 주민의 가장 큰 숙원인 여객선이 신규 취항하게 돼 대단히 기쁘고, 더 안전한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 9월 개관

19억 투입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광양시가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의 명칭을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로 확정하고 9월 개관을 목표로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해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사를 시작, 지난 4월 명칭 공모 등을 통해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로 명칭을 확정했다.

광양시창농미디어센터는 광양읍 서천변에 1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352.24㎡,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창농실, 2층에는 미디어창작실(촬영·편집실)과 창농쉼터 등이 있다.

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홍보와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 사진·동영상 촬영과 편집 등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도 높은 보급형 장비를 갖춘 미디어창작실은 교육수료자의 경우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농실은 체험농장이나 농특산물 홍보, 농업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양=양홍렬 기자

구례군, '섬진강 문화레저파크' 성료

구례군은 "최근 서시천 체육공원에서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섬진강 문화레저파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구례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자라는 공동체가 주관했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의 레인저들과 광주 대학생 청라봉사단 등의 지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청천초등학교 학부모·아이들, 화순에서 초청된 아트포앙상블팀 등 350여명의 청소년과 주민들이 참여했다.

행사 당일 우천 속에서도 대지의 미술, 아트소반 쿡, 길거리 레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이종일 놀이문화 연구소 대표의 새활용놀이터 전시·체험이 게이트볼장에서 이어졌다.

한편, 구석구석 문화배달 '섬진강 문화레저파크'는 앞으로도 8월3일, 8월31일, 9월28일, 11월2일 총 4회에 걸쳐 구례군 서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 도곡 미니파프리카 中 수출 확대

전년比 6.5t 추가 수출…국내 생산량 80% 차지

화순군은 "최근 도곡농협 제1APC에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의 미니파프리카 중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적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문형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광재 도곡농협조합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미니파프리카 3.5t, 1만6천 달러(약 2천210만원)가 수출길에 올랐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은 우리나라 미니파프리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자단체로 일본, 중국, 홍콩 등을 상대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0.5t 규모에 머물렀던 미니파프리카 수출량이 올해는 7t 이상으로 본격 확대됨에 따라 신시장 개척과 판로 다변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별도의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구복규 군수는 "화순군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이 효도행정으로 '향촌 복지' 모델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향촌돌봄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담양군 제공〉

담양군, 600억 투입 효도 행정 선보인다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 수립…복지모델 '향촌복지' 구축

담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새로운 효도 행정 '향촌복지'를 통해 담양만의 복지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2023-2026)을 수립해 체계적인 향촌복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담양군은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로당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4년간 19개 사업에 6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요양시설과 병원 입원 대상 및 장기 요양 인원을 2027년 244명까지 5-7% 줄이고,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도 570만원에서 470만원까지 줄여 군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군은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돌봄 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3개월간 12개 읍·면 4천525명을 대상으로 향촌돌봄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했으며 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행복동행팀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건강지표 측정과 상담, 자가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우리마을 주치의'는 523회, 1천400명의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신설하고, 돌봄 로봇을 이용한 안부 살피기, 요양시설 기능보강과 입소비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일방적인 지원만을 하기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어르신들이 도시에 있는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보다는 담양에서 머물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향촌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 어르신 이불 빨래 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상…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

보성군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뽀송뽀송~ 포근포근~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7일 보성군에 따르면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은 '복지 600' 사업의 일환으로 보성시니어클럽에서 위탁 수행하며, 지난해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해 산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2대씩 구매·설치,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불 빨래방은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이불 세탁이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보성시니어클럽에서 직접 마을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내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건조 후 다시 마을경로당으로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이불 빨래방 추진 현장을 방문해 세탁 봉사를 실시했다. 김 군수는 무더위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무거운 이불 빨래를 손수 옮기며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김철우 군수는 "'사랑 나눔 이불 빨래방' 사업은 아직도 세탁기가 없거나 이불 세탁이 힘든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복지 정책부터 일상생활 돌봄까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민의 삶에도 녹아드는 행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